

# 단 한 명의 문제 해결에서 시작된 노동안전보건운동

- 충남 안재범 회원을 만나다

손진우 소장

---

‘회원 이어말하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을 직접 만나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연구소 활동에 대한 경험과 기대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일터> 4월호에서 만난 주인공은 개별 사업장을 넘어 모든 일터와 지역에서의 안전보건활동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안재범 회원입니다.

**지난달 <일터>부터 첫선을 보인 ‘회원 이어말하기’ 두 번째 주인공이십니다. 코너는 보셨어요?**

인터뷰해야 하니 오면서 읽어 봤습니다. 제 얘기를 담는다니 조금 부끄럽네요.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구소 운영위원이고, 충남의 금속노조 KB오토텍지회 조합원이고, 금속노조 충남지부에서는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안재범입니다.

**KB오토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용 공조기와 열교환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곳인데요. 저는 자동차 공조기의 소음 진동을 시험하고 분석하는 무향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KB오토텍이 첫 직장인가요?**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 후 울산에 있는 중공업에서 처음 일했는데요. 거기도 멀고 해서, 충남으로 다시 올라와 지금 회사에 들어왔어요. 1994년 4월에 입사했으니, 벌써 만 32년 정도 일했네요.

**모두 궁금해하실 만한 것을 여쭙볼게요. 연구소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원래는 저희 회사가 만도기계 아산 공장이었는데요. 입사하고 굉장히 시끄러운 부서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됐나, 같이 일하던 형님께서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아이들한테 소외되고, 가족 관계도 안 좋아지고, 노동

조합에서 회의할 때도 그걸 느낀다고 얘기 하시는 걸 들은 거죠. 그 형님이 저 같은 신입 조합원들에게 엄청 잘해주는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안쓰럽기만 했죠.

그러다가 일한 지 5년쯤 됐나, 우연치 않게 연구소가 충남에서 진행하는 노동안전보건 대중강좌에 가게 됐고, 그때 소음성 난청이 '직업성 질환'이라는 얘기를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당시 현장에서 소모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자고 마음먹게 됐어요.

### 조합원 형님의 문제가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군요.

맞아요. 그런데 막상 산재 신청 준비를 하려고 하니, 당시 노동조합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고,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연구소를 방문했죠. 그러면서 작업환경 측정(이하 측정)이나 특수건강검진(이하 특검)이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찾아보게 됐어요. 실태 파악할 때 어떤 자료들을 찾고, 봐야 한다는 길잡이 역할을 당시 연구소에 계신 동지들이 해줬고요.

### 그래서 승인이 됐나요?

아뇨. 불승인됐어요. “산재 해 보자”고 형님 설득하고, 무작정 신청을 했으니깐요. 그때부터 과거 자료를 다시 뒤져 보고, 불승인 사유서를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측정 대상 공정이지만 누락되어 있었던 것, 측정 대상자도 선별이 안 된 걸 확인했고요. 그런데 막상

특검에서는 대상자인 것도 발견했죠.

근데 특검 결과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역에서 꽤 유명한 기관에서 한 명의 의사가 계속 판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C2(일반 질병 요관찰자)로 판정되고, 다음엔 C1(직업병 요관찰자)이 나오고, D1(직업병 유소견자) 됐다가, D2(일반질병 유소견자)가 되고...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결과가 계속 뒤바뀌는 걸 보면서, 문제가 있다는 걸 확 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측정과 특검 자료를 토대로 다시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데, 이번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금속노조 법률원과 소송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서 결국 승인을 받게 됐어요.

### 연구소와의 인연이 값진 승리로 이어졌네요. 정말 뿌듯했겠어요.

산재 승인 후 그 형님과 식사를 했는데, 가족들에게 “내가 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얻은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회사에 “일하다 발생한 산재이니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고요. 그 일을 겪으며 회사의 작업환경 측정 및 검진 기관을 반드시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 한 사람의 산재 승인에 머물지 않고, 현장 전체의 변화로 활동을 넓히신 거네요.

몰랐으면 안 했겠지만, 알게 됐으니깐. 그리고 같이 고민하는 현장의 동료들(당시 소모임 구성원)이 있으니깐, 가능할 것 같고, 바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재 소



▲ 2026.03.13. “제가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연구소에서 배운 것처럼, 그 배움을 다시 나누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사진 : 한노보연

송을 준비하면서 이게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라는 걸 확인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팀을 꾸려서 2주에 1번씩 서울로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이게 노조 집행부 선거에도 대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고, 당선 이후 집행부로 일하게 된 거죠.

**정말 흥미진진한 과정이네요. 기관도 바꾸셨어요?**

그렇게 연구소를 찾아와서 측정, 검진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산안법 이런 걸 폭넓게 알게 되고, 특히 어떤 관점으로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해 나가야 하는지, 철학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걸 다 지게 된 것 같아요. 뒤풀이에서 고민도 잔뜩 나누고요. 서울 오가는 게 힘에 부치기도 하고, 기차에서 졸다 대전까지 간 적도 많았지만,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놀라운 건 집행부가 바뀐 후 회사와 진행한 첫 산보위에서 기관 변경, 활동 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는데, 이게 다 수용된 거죠. 저희 끼리 했으면 아마 안 됐을 텐데,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승인을 받고 나니까, “나도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도 연구소와 같이 고민하고 대응하면서 조합원들 만나서 어디 아픈 지를 묻고 하다 보니까... 현장의 힘이 모이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KB오토텍지회는 노조 파괴를 이겨낸 강한 조직력으로 유명한데, 그 밑바탕에 탄탄한 노동안전보건활동이 있었군요.**

사업장 안에서만 간헐 활동했으면, 아무리 조직력이 탄탄해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한발 앞서 나간 사업장의 경험을 배우러 다녔고, 우리 사안을 지역으로, 지

역에서 전국으로 연결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금속노조도 든든한 힘이 됐지만, 연구소가 준 자극과 연대의 힘도 컸던 것 같아요.

주간연속2교대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근골격계 질환 문제로 현장을 개선하고, 나아가 야간노동의 문제를 제기하며 주간연속2교대를 맨 먼저 시행한 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의 사례를 연구소 교육으로 배웠던 경험이에요. 요구안 관철을 위해 우리는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조합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들, 분임조를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설득하고, 토론한 과정을 확인하면서 저희 현장에도 무척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사측이 노조를 꺼려고 현장에 특전사랑 경찰 출신의 신입사원을 투입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축대발을 만든 상황에 파업으로 대응할 때,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관리직들을 특별안전교육의 문제를 제기해서 물아냈을 땐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사측과의 싸움이 잠시 소강상태일 때 안전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로봇작업 문제로, 작업중지를 하고 문제가 있음을 산보위에서 노사가 같이 확인하고, 일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거든요. 그런데 뒤통수 치듯이 사측이 고소고발을 통해 작업중지 사안으로 겁박할 때, 연구소가 앞장서서 '작업중지권 고소고발 철회하라'고 저희 회사 서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조직하고 사회적으로 쟁점화해서 바로 취하하게 했던 것 등 정말 많은 과정을 함께해 왔네요.



▲ 2015.07.07. '산재법 개혁,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안재범 당시 김을오팀 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이 김을오팀 산업재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금속노동자

### 충남을 넘어, 충청 지역과 전국 곳곳에서 어디든 도움을 요청하면 달려가는 것으로 유명하신데, 힘들진 않나요?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게 즐겁고 뜻깊었어요. 물론 몸은 힘들었지만 말이죠. 특히 조합원들도 “우리가 도움받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당연히 언제든 가서 역할해야 한다”고 제게 응원을 더 많이 해주기도 하고요.

### 마지막으로 연구소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연구소에서 배운 것처럼, 그 배움을 다시 나누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알타**